2026년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울산 MBC

’26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울산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0	10. 20	4층 회의실	8명/ 총 14명	6명		14명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다현, 김동민, 김인석, 박한규, 송인옥, 이희승, 초금향, 현숙희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유해진(사장), 옥민석(경영기술국장), 설태주(방송제작국장), 이상욱(광고사업국장), 박준영(편성제작팀장), 최지호(보도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34	2	-	-	5	-	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3	2	0	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건	건	
방송편성			
보도			
교양			
연예·오락			
기타			
자체심의			

라. 시청자위원회의 시청자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처리실적

안 건 내 용	조치(개선)내용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울산문화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운영실적	인터넷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송편성					
채널구성·운영					
보도	o '골프장 땅에 숲 가꾸기' 관련 연속 리포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울주군에서 발주한 숲 가꾸기 사업이 향후 민간 골프장 확장에 쓰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는 지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위원 김인석)	o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울산MBC 보도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고 지역사회에 이런 사실이 문제 제기되면서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탁대행 기관인 산림조합은 보도 이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에서 해당 입지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의혹 제기가 사실상 팩트로 굳어진 양상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후속 보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o 태화강 물고기 떼죽음.."이런 광경 처음" 리포트는 도심 속 청정 하천을 자랑하는 울산에 보기 드문 현상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공업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고 방심하는 순간 환경 문제가 닥칠 수 있으니 평소에도 꾸준하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송인옥)	o 환경운동연합의 제보로 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 산책로인 태화강변에 물고기 폐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원인 분석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다행히 떼죽음 전 비가 많이 와서 염분농도가 낮아진 게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오염원 유입에 대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	○		
	o '위험하다 요구에도 방어진차고지 참변' 뉴스를 유심히 봤습니다. 동구 방어진 정류장의 구조적 문제를 잘 짚었고 앞으로 관계기관의 후속 대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겪이지만 반드시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 김동민)	o 해당 뉴스 역시 동료 버스기사들의 제보로 제작됐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사고는 전조증상이 누적된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현장에는 긴 횡당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통행에 불편이 생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안전 유도선이나 보행진입 경고등 같은 교통편의 안전시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구청,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하니 후속 대책을 살펴보겠습다.			
교양	o 특집 다큐멘터리 「황방산두꺼비」에 대한 의견 최근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황방산에 서식하는 두꺼비를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역의 산과 자연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생태적 가치와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꺼비의 생태적 특성과 서식 환경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개발과 환경 변화 속에서 이들의 서식지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지역사회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의 제작 의도와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울산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초금향)	o 이번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지역의 자연환경 속에도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생태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한 콘텐츠입니다. 특히 두꺼비라는 생명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태환경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역방송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의 사건과 현상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치와 의미를 발굴해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는 이러한 지역방송의 역할에 충실한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아 '이달의 PD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작은 생태적 소재도 깊이 있는 취재와 제작을 통해 충분히 의미 있는 방송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작진에게도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지역방송의 본질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식지 보전과 도시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생태적 현상을 소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 변화의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원인과 지역사회의 역할, 실질적인 보전 방안까지 함께 짚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의 산과 강, 바다 등 지역의 자연환경이 지닌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는 생태·환경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o 「플레이볼! 울산웨일즈」신규 코너 에 대한 의견 올봄 「울트라」에서 새롭게 선보인 코너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울산을 연고로 새롭게 출범한 울산웨일즈가 창단 첫해임에도 퓨처스리그 통합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러한 결과뿐만 아니라 구단의 출범 과정부터 선수들의 도전과 성장, 경기장에서의 열정까지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콘텐츠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발성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 형태로 제작해 선수단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KBO가 울산 야구문화 정착을 위해 울산 경기에서만 특별히 운영한 저녁 6시 30분 시작의 '먼데이나잇 베이스볼' 현장까지 생방송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지역 연고 스포츠단의 활동을 단순히 경기 결과나 성적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산웨일즈의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담아낼 계획인지, 나아	o 위원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을 연고로 새롭게 출범한 야구단의 탄생과 도전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응원하고자 「울트라」의 신규 코너로 기획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단순히 구단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총 18편의 VCR 시리즈를 통해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도전, 경기 뒷이야기, 구단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KBO가 울산 야구문화 정착과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 경기에서만 특별히 운영한 저녁 6시 30분 시작의 '먼데이나잇 베이스볼' 현장에도 주목했습니다. 경기장의 생생한 열기와 현장 분위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총 12회에 걸쳐 LTE 생방송 연결을 진행하는 등 기존의 스튜디오 중심 코너에서 벗어나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창단 첫해 울산웨일즈가 퓨처스리그 통합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을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콘텐츠는 단순히 야구 경기나 성적을 소개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가 지역 스포츠와 시민들의 관심을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현숙희)	넘어, 울산이라는 도시와 새롭게 출범한 구단이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와 도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는 시리즈 제작과 현장 생방송을 결합해 지역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웨일즈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 인물들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발굴해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자체심의 규정					